

한국, 중국, 일본 며느리의 한국에서의 부양 경험

김윤정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Comparison of experiences of caring parent-in-law in Korean families among daughters-in-law from Korea, China and Japan

Yun-Jeong Kim

Dept. of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부양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사용하였다. 결혼이주 중국여성과 일본여성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비교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으며, 시부모와 부양경험이 있는 여성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받았고, 한국 기혼여성의 경우 주변의 추천을 받았다. 연구 예비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의 분석을 위해서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결과 본질주제는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였다.

주제어 : 시부모부양경험, 결혼이주여성,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가부장적 문화, 효 의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xperiences of caring parents-in-law in Korea among daughters-in-law who are currently caring their parents-in-law while living with them, or have experienced such care-giving, and who have been married for at least 5 years. Daughters-in-law this study deals with are from three countries: Korean women, Chinese and Japanese women who immigrated to Korea by getting married with Korean husbands. To find out those women who can express their experiences clearly, this study used an intentional sampling method where this study ask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o recommend five Chinese and five Japanese housewives who matched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those who have experiences of caring their parents-in-law at home, who have lived in Korea for at least five years, and who had no difficulty in expressing their opinions in Korean language. Korean married women were recommended by the neighbor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those 15 housewives from Korea, china, and Japan. Before doing the interview, this study gave explanation of the contents and aims of this study to those interview participants over phone, and got the written consent from each of the women. To analyze the interview data,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The emergent themes identified i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posi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nature of filial duty', 'help and encouragement by those who are nearby', 'exhausting marriage life', 'Korean family culture that is hard to adapt to', and 'unreasonable male-focused patriarchal culture.'

Key Words : caregiving experiences in Korea, marriage immigrant women,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patriarchal cultural, filial piety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216)

Received 18 June 2014, Revised 22 July 2014

Accepted 20 August 2014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Hanseu University)

Email: twoyun21@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커서 부양자의 삶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서 부양상황에서의 문화적 차이,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간 우리사회는 단일문화라는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부양에서 문화적 차이나 동질성 등 문화의 의미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1990년 중반, 혹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다문화라는 용어조차도 생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한국은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은 다문화가족 중 89%(196,789명)로 다문화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1]. 아직까지 여성이 노부모 부양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부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노인부양에 있어 문화를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젊은 층의 탈농·이촌으로 이미 오래전에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세대의 단절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농촌을 지탱해 줄 대안이기도 하다[1].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결혼이주자 여성의 상당수가 시부모와 동거하거나 근처에 사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시부모부양의 경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화적으로 성장배경이 다르다 해도, 한국의 기혼여성이나 결혼이주 여성 모두 한국이라는 문화에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시부모부양에는 한국적 상황에 따른 공통점이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서구의 경우 부양에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부양과 문화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2-6].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양적인 연구로 부양부담이나 부양가치관(가족주의 가치관, 효의식), 대처전략이나 사회적 지지

에서 문화(인종)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소수 발표된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다[7-8].

한편, '문화'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심층면접, 관찰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양적연구의 결과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6], 문화에 따른 부양의 요구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준다[9]. 또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구조를 그들의 언어를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질적 연구방법이 더 적합하다. 물론 질적 연구방법으로 부양과 문화 간의 관계를 파악한 몇 편의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Ayalong[10]은 부양에서 문화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경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계 미국인 8명을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화 된 인터뷰를 통해 '가족부양의 전통', '가족갈등', '부양에서의 불협화음', '공적서비스의 낮은 이용'이라는 4개의 공통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Donorfo와 Sheehan[11]은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노모와 딸 간의 부양의식의 유형을 '획일적인(undifferentiated)', '냉정한(dispassionate)', '상호간의 안정적인(mutually balanced)'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부양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한국기혼여성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를 찾아보지 못하였다. 단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12-13] 결혼이주여성과 시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14-15],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16],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한국의 기혼여성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양에서 문화적 차이나 갈등에 대한 고려가 적기 때문으로 해석되나,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혼여성과 결혼이주 중국여성 및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분포를 봤을 때, 중국이 29.9%, 베트남이 23.25%, 필리핀이 7.8% 순이다[17]. 결혼이주 일본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수치가 적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전통적 가족문화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 중국여성 및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모계 중심적이며 서구 식민지의 영향으로 양성평등 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서,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 경험을 문화적 차원에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및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 부양 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에서의 시부모 부양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인간 의식과 체험된 삶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8]. 즉, 현상학은 대상의 기술에 의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방법이며,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체험(lived experience)을 드러내고 인간이 체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혀내어 자연스런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19].

현상학적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료 분석 방법 중 하나인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심리적 경험을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경험은 인식 하에 있으므로 지각적으로 기술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20]. 이는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가운데 개인적인 진술보다는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시켜나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참여자의 확인을 통해 연구자가 분석한 맥락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걸쳐 연구자의 선입견을 여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1-22].

2.2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연구자가 밝히고자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또한 그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중, 비교적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고, 시부모와 동거부양경험이 있는 중국과 일본 여성을 국가별로 5명 이상씩 추천 받았다. 한국기혼여성의 경우는 대학원생들로 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한국여성 역시,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되었고, 시부모 동거 부양경험이 있는 여성 5명이었다. 연구 예비 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고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체로 심층면접에 언어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층면접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의미전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2명의 결혼이주 중국여성에 대해서는 조선족이며 본 대학의 한국어 강사인 박사 과정생이 심층면접과 전사를 담당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면접 장소는 대상자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자택 등에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대상자별 1~3회 정도의 심층면접을 통해 내용의 포화상태에 이르기 까지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기 당 60분에서 12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하에 녹음된 현장녹음과 연구자의 현장기록 노트에 의해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의 초기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으로는 부양을 하면서 어떠한 점이 힘이 드십니까? 부양을 하면서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부양을 하면서 힘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의 부양문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국의 부양문화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녀로서 효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면담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하였다. 연구주제 관련된 질문들을 진행하며 미흡한 부분과 애매한 표현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발견된 범주나 과정을 확인하는 순환적 반복과정을 거쳤다.

2.3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기혼여성 5명, 결혼이주 중국여성 5명, 결혼이주 일본여성 5명, 이상 총 15명 이었다. 그 중 혼인연령이 5년 미만인 결혼이주 중국여성 1명과 일본여성 1명을 제외한 총 13명을 본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9.7세로 40대가 10명, 30대가 2명, 50대가 1명으로 순으로 40대가 많았고, 혼인연령은 평균 13.7년 이었다. 시부모 부양 동기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여건이 안됨 6명, 한국의 효 의식 3명, 자녀 돌봄을 받기 위함 3명, 부모의 건강악화 1명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기혼여성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자녀양육에 있어 시부모의 도움을 제공받으려는 목적이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큰 동기로 나타났으며, 중국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동기에서 독립할 여건이 안 되어 시부모를 부양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효 문화가 주된 부양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2.4 질적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Merleau-Ponty의 영향을 받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Colaizzi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Colaizzi[20]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필사한 내용과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면담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현장노트도 참고하였다. Colaizzi[20]의 구체적인 분석단계는 7단계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선희[23]가 제시한 Colaizzi의 7단계를 참고하여 본 연구와 연관시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의미형성과 주제묶음을 통해 소주제 16개, 본질주제 5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본질주제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주변의 도움과 격려’, ‘고단한 시집살이’,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 문화’,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의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3.1 효 문화의 전통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유교적 효 의식에 바탕을 둔 한국의 전통적 부양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중·일 삼국은 근대화 이전 유교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문화권으로서 군신관계의 충(忠)과 더불어 부자관계에 있어 효와 충효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현대 산업화 이후 많이 퇴색되어 지기는 했지만 부모 부양을 마땅한 자녀로서의 도리라 생각하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며, 조부모로부터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부모 부양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3.1.1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한국의 효 문화를 좋게 받아들임

중국이나 일본도 산업화 이전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효를 중시하는 사상과 농업 등 1차 산업에 기반 한 가족 협동적 경제구조가 바탕이 된 대가족제도 하에서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였고, 따라서 한국의 효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옛날 30-40년 전에는 같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장남이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이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끼리 살거나 혼자 있어도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혼자 살수 없는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같은 것이 있어서 혼자 지내기 어려울 때가 되야 같이 지내고 있지요 그 대신 한국은 시골은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보통 일본사람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효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고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부모님을 모시던 효 문화를 좋아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모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

여자 - 11)

조선족들은 거의 뭐 모시고 살아요 한족들은 거의 따로 사는 부분이 많고 조선족들은 거의 이제 부모를 모셔야한다 그런 생각이 옛날 그 한국문화 뿌리가. 그래서 부모님들은 큰아들이 모시고 살아야한다고 하죠 효사상이 있어서... 거의 모시고 사는 편이에요. (연구참여자 - 7)

3.1.2 부양 문화가 자녀에게 본보기가 됨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3대가 함께 살면서 부모가 조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연로한 노인에게 대해 공경하는 태도, 예의범절 등 자녀양육에 있어 본이 된다고 생각하며 자녀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Table 1) Emergent theme in caregiving experience of im-laws in Korea

Theme Cluster	Emergent T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perception of caring parents-in-law among women from the same Confucian culture; Culture of caring parents-in-law becomes model for children 	Posi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nature of filial du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Getting help from parents-in-law in adapting to Korean life; Getting economic support from parents-in-law; Parents-in-law care their children in dual income household; Living with parents-in-law helps in the emotional growth of children; Receiving support from relatives for caring parents-in-law 	Help and encouragement by those who are nearby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st discard own life patterns; No place as wife or mother; Exhaustion from excessive family livelihood; Husband is not on my side; Difficulty in taking care of all 	Exhausting marriage life

the events in the in-law househ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mbiguous boundary and wide range of the concept of family; Ambiguous familiarity among family members 	Korean family culture that is hard to adapt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ess from patriarchal mind-set of in-law family; Demands of obeying dogmatic decision-making from parents-in-law 	Unreasonable male-focused patriarchal culture

효란 자기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서, 한국의 효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노후에도 자녀로부터의 효를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보였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보고 자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애들이 어머니 간병을 부분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기저귀도 갈고 시트 같은 것도 갈아주면서,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그런 것을 보면 가정교육이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저도 따라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 5)

효 문화 좋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부모님한테 하는 것을 보고 애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미리 효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좋은 산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11)

3.2 주변의 도움과 격려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떠나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 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혼여성 역시 시댁가족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된 시부모에게 신체적·경제적·정서적 서비스를 통한 부양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희생은 아니었다. 시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친인척의 도움과 격려로 부양에서의 상호 호혜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생활 혹은 시댁살이 적응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3.2.1 실생활적응에서의 도움이 됨

‘이주’는 중요한 생활의 변화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화와 관련된 스트레스이다[24]. Oberg[25]는 이주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위화감이나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부모와의 동거로 해소되고 있었다. 즉, 결혼 초기 서툰 신접살림과 자녀양육 등의 어려움을 시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도움을 받았다. 시부모는 낯선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 전수자로서의 · 식·주와 생활양식 등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생활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또한 언어의 습득에 있어서도 남편보다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시부모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거 없었어요. 한국말 배울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손짓 발짓 하면서 눈치로 배웠죠.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외출할 때마다 병원이나 시장 갈 때 데리고 다니면서 버스 타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 10)

그니까 그런 살림을 다 어머니한테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리하고 살림하고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다 어머니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요. (연구참여자 - 6)

3.2.2 경제적 지원을 받음

본 연구 참여자 13명 중 6명이 시부모의 동거부양동이 경제적 독립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제활동에 있어 부모님의 농사일을 함께 하거나, 시부모로부터 자영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받는 등, 부모에게 의존적인 경제적 여건을 갖고 있었다.

우리 애기아빠도 서울에서 계속 쪽 살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같은 거 가게를 열고 얼마 안되서 IMF 터져서 그걸 망하고,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면서 시골에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내려와서는 쯤 어려웠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우리 애기아빠

도 어려워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았죠. 애기아빠도 일 없고 저도 일 없고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의지하고 살았죠. (연구참여자 - 8)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시집오는 사람이 부유한 집으로 시집오는 사람이 거의 드물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뭐 그냥 힘들었죠. 지금도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고 그냥 먹고 살만은 한데, (중략) 생각보다 또 너무 (돈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힘들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부모님의 전담으로 농사짓고 살고 있으니 시부모님께 감사하죠. (연구참여자 - 7)

3.2.3 맞벌이 환경에서 자녀를 돌봐 줌

한국기혼여성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현재보다 열악했던 과거에,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시부모의 도움으로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녀양육이 시부모와의 동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였다.

맞벌이를 하면서 애 보기가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 봐주는 것보다 좀 더 편하고 애들에게도 좋은 듯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더 따르고. (연구참여자 - 1)

3.2.4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됨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3대가 함께 살면서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부모와의 동거) 애기 정서상에서는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애들 정서상에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애한테는 정서상으로 좋았어요.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플 때도 잘 돌봐 주시고, 화기에 애한 면도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 6)

할머니들이 애들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커서 힘든 일이 있고 할 때 보이지 않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11)

3.2.5 부양에 대한 친인척의 지지를 받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친인척들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고충을 알아주고 자신의 부모를 잘 부양해주는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의 표현, 따뜻한 위로를 할 때 보람을 느꼈다. 특히 한국여성들이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다른 가족들의 지지나 인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며 사회적 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숙모님이나 외삼촌들이 어쩌다 보게 되면 자녀가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주시고 얼굴 볼 때마다 고생이 많다 얘기를 감싸주기도 하고 일 다니면서 애도 키우고 하느라 고생이 많다 하는 말들을 해주곤 해서 다소 위안이 되긴 해요 (연구참여자 - 1)

가끔 가족들끼리 모이면 막내네가 고생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들 하셔서 그래도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3)

3.3 고단한 시집살이

가족은 사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집단이기도 하지만 가족구성원들의 사생활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사생활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여 자신의 생활패턴을 버리고, 시댁가족의 생활패턴에 무조건적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동거를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모가 자신의 모든 역할을 대신해주는 바람에 자신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설 곳이 없는 애매한 서러움도 겪어야 했다. 또한 함께 산다는 이유로 시댁의 모든 생업이나 대소사를 모두 자신의 몫으로 감당해내고 있었다.

3.3.1 내 생활패턴을 버려야만 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옷 한번 편하게 입지 못하고, 여행을 갈 때도 항상 시부모와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은 없었다. 또한 이른 시간에 일어나 시부모와 함께 살며 새벽잠을 포기해야 하고 시부모의 생활패턴에 맞춰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집에서 편하게 옷을 못 입어. 애로사항이기도 하구요. 특히 한여름에 민소매에 반바지라도 입고 싶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어요. 항상 긴바지를 입고 지냈지요. 또 여행을 하거나 외식을 할 때도 우리 내외하고 애들하고만 같이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같이 하시고 한번도 안 간다는 말을 안하세요. 시부모님 계실 땐 우리끼리 여행 한번 못했다는 것이 불편한 점이지요. (연구참여자 - 3)

3.3.2 아내와 엄마로 설 자리가 없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시부모의 간섭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녀양육의 부분이나 남편과의 관계 등에서도 시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남편의 아내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침해 받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갈등 현상은 Leslie(1967)의 '두 명의 주부가 함께 살아나갈 만큼의 큰 집은 없다'는 말처럼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가피하게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억압은 고부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26-27].

내가 있는데도 우리남편이나 애들 일을 자신의 일인 것처럼 관여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역할을 본인이 다 하려고 했지요. 같이 오래 살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애들하고 있는 시간도 많아서 그렇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몇 번 큰소리가 났었지요. 내가 있는데 손주들 일을 일일이 참견하는 것이나 우리 남편 하나 하나 참견하고 챙겨주고 하는 것 등이 불편했어요. 없을 때면 모르는데 내가 있는데도 그냥 계시면 되는 일도 나서서 직접 챙겨주고 내가 할 소리를 어머님이 하시니 좀 기분이 이상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내 입장에서선 너무 신경 쓰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내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 3)

3.3.3 과도한 가족생업으로 힘이 부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님이 농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연로한 시부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또는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되려고 시부모의 생업을 위해 노동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

도 시부모의 생업을 위해 여가시간 없이 일손을 도와야 하는 현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요에 의한 헌신으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혼 때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농사지으니 도와 주어야 하고 주말에도 늦잠 못자고, 그래서 참 내가 많이 울었어. (연구참여자 - 4)

저희 집은 낚시터까지 해요. 낚시터에 민박집까지 있어요. 민박에 6개 방이에요. 그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오니까 편한 거예요. 처음엔 제가 적응이 안 되서 밥만 했어요. 밥만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만족하시던 분들이 점점 가면서, 요구를 더하시고,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민박 방 청소까지 다 하다보니까 손이 다 까져 피가 날 정도로 제가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 6)

3.3.4 남편이 내 편이 되어 주지 않음

시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지지는 부양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28]. 그런데, 시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편을 들어주거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의 편이 되거나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아들에 대한 애착이 강한 한국시 어머니는 연구참여자들과 갈등의 순간에도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갈등의 탓이 모두 연구참여자에게 돌아오는 억울함도 겪었다.

어머니와 갈등을 겪을 때 남편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저하고 막 부딪쳐서 뭐 같은 거 부수기도 하면 애들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긴 해요. 애들 아빠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평화롭게 온순하게 있어요. 아들이 하나라서 그런지 아들만 있으면 달라져요. 그럼 애들 아빠는 나한테 왜 싸움을 걸어놓고 그러느냐며 타박을 해요. 그러면 내가 속이 너무 터져서 CCTV를 설치해놓고 누가 잘못 했나 한번 보라 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 5)

3.3.5 시댁집안 대소사를 모두 챙겨야 하는 어려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를 부양하면서 명절과

제사, 김장 등 세시풍속 때마다 찾아오는 가족들을 위한 음식 장만, 손님을 치르기 위한 준비 등에 신경을 써야 했다. 가족들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일들도 시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몫의 일을 분담하게 되어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 불편함이나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하였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들은 한국의 세시풍속과 자국의 세시풍속이 달라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데 올 설에 저희 둘째언니가 중국에서 왔거든요. 이날이 아니면 얼굴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잠깐 얼굴 보자 해서 잠깐 나갔다가 한 5시경에 시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차례음식, 전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니까 어머니 말로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도 안 오고, 동서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저하고 전을 다 부쳤죠. 그 밤에 신랑하고 전을 다 부치고 나서 한 11시 되니까 동서가 왔더라고,, 그래서 명절날에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썩 그게 안 좋아요. (연구참여자 - 6)

김장을 어느 때는 시누들 와서 같이 담을 때도 있고, 동서 와서 담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겨만 한 100포기씩 담은 거 같아요. 그래도 준비 다 하죠. 그러면 시누나 동서 와서 해가지고 가져가요. 해서 보내기도 하고 배추고 무고, 산다고 해야 새우젓하고 젓국하고 집에 있는 거로 하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 10)

3.4 적응하기 어려운 한국의 가족문화

한국인은 평소에는 핵가족으로 살지만, 명절이나 집안의 관혼상제 등 대소사에는 방계 혈족까지 대가족이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친족이라고 하는지 혼동스러워 했다. 또한 한국인의 싸우면서 정이 드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이해하기 어려워 했다.

3.4.1 가족범위가 넓고 경계가 모호함

가족이란 계승의 주체가 되는 혈연관계, 성원들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규범, 그리고 체계적 조직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29]. 또한 가족은 서로 친밀하여 비 가족원과

구별되는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으며, 서로에 대해 애정을 느끼는 범위도 분명한 특징이 있다. 그런데, 가족과 비가족 간의 경계가 한국과는 다른 결혼이주 일본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본에선 명절 때만 가는 사람도 있고 돌잔치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오고 사촌들은 안와요. 내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가족이라는 거지요. 일본하고는 많이 달라서.. 우리가 가족하면 아빠 엄마 애들, 부모님과 동거한다면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님까지만 가족으로 하죠. 근데 한국은 큰아빠 큰엄마 고모, 고모부 참 많아요. 그렇게 다 가족이라고 하죠. 일본은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한국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해도 가족 때문에 힘든 점은 없지요 (연구참여자 - 11)

3.4.2 가족 간의 친밀감이 애매함

한국인의 가족 간의 친밀함을 결혼이주여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인의 직접적인 언어표현, 싸우면서 정이 드는 애매한 친밀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애매함을 tình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은) 처음엔 친하게 지냈다가 다투면 이걸 이거로 저것 저것이다 하며 서로 싸우면서 풀어지고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근데 일본에선 한번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상처 받았다 하면 이제 어머니 집에 가지 말자. 이제 친척 관계를 갖지 말자하고 서로 멀어져서 남들처럼 관계가 없이 되요 (연구참여자 - 11)

그러니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본은 좀 조심스럽게 권하는 그런 스타일... 그니까 이게 좀 문화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너무 직접적이거든요. 일본은 한번 쿡션 넣고 말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말 자체가 한국은 직접적인 표현이 많잖아요. 일본은 그게 아니라 약간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라 많이 화가 나고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면서.. 할 말인지 아닌지 생각을 하죠 (연구참여자 - 12)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으로 뭐냐면 다 나오는 거고. 일본은 머리로 먼

저 생각하고 움직여요. 정이.. 아 그러니까 생각해서 막 나오는 거고. 일본은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 13)

3.5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부모 부양을 하면서,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아들만 선호한다거나, 가정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며느리의 사회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등,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3.5.1 부계중심적인 사고에 대한 서운함

가부장 문화에서 과생된 남아선호사상은 한국, 특히 농촌지역이 강하다. 부계중심적인 사고가 강한 시부모는 장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손자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부모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스트레스를 겪었다.

장남위주의 사회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아직까지 우리 장남 우리 장남해요. 근데 친정엄마도 보면 장남을 보면 안쓰러운가 봐요. 잘 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장남이 최고고. 여건만 되면 장남하고 살고 싶어 하고 그럴 거예요 (연구참여자 - 2)

저 둘째 낳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기껏 딸 낳는데 축하하는 무슨 축하 무슨 고생을 했냐면서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딸을 셋 낳았는데 친정엄마 닦아 딸만 낳고 산후조리원에 돈 들어가게 한다고.. 너무 속상했어요 (연구참여자 - 6)

이러한 부계중심적인 사고는 여성의 사회활동제약으로도 나타났다. 연구의 참여자 중 한국여성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활동으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으로 시부모와 동거부양을 하고 있었으나,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기혼여성과는 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었다.

결혼이주 중국여성이나 일본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시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한 중국여성은 사범대 졸업과 일본유학으로 대학

원을 졸업한 수재도 있었고 일본여성의 경우 대다수 남편보다 학력이 높았다. 이에 반하여 남편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부모는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 돈 잘 버는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기죽을까봐 연구참여자의 사회활동을 반대하여 사회활동을 포기하게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발전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연구참여자는 며느리의 사회활동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시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은 저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 방과 후 중국어 강사를 저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침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나가 일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중략) 그냥 안하고 집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래요. (연구참여자 - 6)

애기아빠 믿고 살수도 없고, 애기아빠 믿을 형편도 못되고, 나가서 돈 벌어야겠다 싶어 중국어 강의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이랑 또 여자가 나다니니까 애기아빠도 싫어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잘나가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기죽는 건 보기 싫을 거 같거든요. (연구참여자 - 8)

3.5.2 시부모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참아야 함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가족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가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시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안의 대소사에서 자신들과 상의 없이 결정해도 일방적으로 따라야 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솔직히 이 펜션도 짓겠다 소리 안했는데도 아버지 임의대로 지으시고, 펜션구조도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도 아버지 임의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갈등도 많았었고요. 아버지하고 갈등도 많았고 그러면서 아무튼 지었어요. 그러면서 딱 떠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해줬다. 이거죠. 애기아빠도 맘에 안들죠. 본인은 여기서 살기 싫는데 이런 걸로 아예 놀러버리니까. (연구

참여자 - 8)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난 완전히 에스팬이었지.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시끄러웠을 걸. 자식이나 누구에게나 생각을 굽히는 적이 없어. 그러니 서로 절충이라는 것이 없는 분야야, 지금도 그러시구. (연구참여자 - 4)

4. 결론

본 연구는 시부모를 동거부양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이 있으며 혼인연령이 5년 이상 된 한국의 기혼여성, 결혼이주 중국여성, 결혼이주 일본여성 13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시부모부양경험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12월 까지 6개월에 걸쳐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의미형성과 주제묶음을 통해 소주제 16개, 본질주제 5개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은 같은 유교문화권으로서 한국의 효 문화를 좋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양문화가 자녀에게 본이 된다고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효 문화의 전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효의 윤리에는 나 혹은 개인을 독립적 자아로 의식하기 보다는 '가족으로서 우리'의 구성인자로서 전제한다[30]. 따라서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한국의 효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부모에 대한 동거부양이 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만난 시부모로부터 도움과 주변의 격려를 통해 시부모 부양에서 적응하고 있다. 부양에서의 상호호혜성은 한국에서 시부모부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데, 갈등상황에서 남편과 친인척의 지지는 한국여성만이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부양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31].

셋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은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고단함의 바닥에는 가족구성원을 독립적 주체로 여기기보다는, 상호 의존하

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 가족집단주의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것이다. 특히 가족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며느리는 시댁의 모든 요구에 따라야 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14]. 따라서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고 심지어 희생하면서도 가족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끔 요구받으며[29], 이러한 가족집단주의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결혼이주 일본여성은 한국의 가족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특히 결혼이주 일본여성에게서 나타난 범주로서 현재 일본의 가족부양제도와 관련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전후 일본은 민병제정과 호적제도의 개정에 의한 '이예'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예'제도 하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 무가 단독상속자인 장자에게 있었으나, 1948년 신민법에서는 단독상속에서 균분상속으로 크게 변화하였고, 노부모부양은 모든 자녀의 동등한 권리가 의무로 변화하였다[32]. 이에 따라 일본의 가족이 미국사회와 비교할 때 오히려 더 개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인의 의식의 변화가 현재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특히 결혼이주 일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가족문화나 한국의 가족의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을 가족원으로 두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며느리가 자라고 성장해 온 국가의 가족의 개념과 가족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혼이주 중국여성의 경우에는 한국가족의 범위나 애매한 친밀감에 대한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없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가정은 부계 중심의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이었으나, 사회주의 사상과 더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가족계획 정책과 개혁개방으로 인해 가정부양의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중국가정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세대 간 노동 교환, 경제상 지원, 생활상 돌봄, 감정교류 등의 부양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별거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정된 직계가족의 형태를 갖는 것이 현대 중국 가족구조의 특징이다[33].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더불어 본 연구 대상자가 주로 조선족이기 때문에 일본여성과는 달

리 한국의 가족문화에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결혼이주 중국여성은 일본여성과는 달리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박경동[34]에 따르면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 이주 여성끼리 통화하며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두려움의 이유는 며느리가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가정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에 있다. 따라서, 부족한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똑똑한 며느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부모의 반대로 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12].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지만. 그 근처에는 시부모가 며느리의 가족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초기에 결혼이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가족문화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며느리 출신국가에 대한 교육 및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서로의 가족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은 한국의 부계중심적인 사고와 가장권을 가지고 있는 시부모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등 남성 중심적인 불합리한 가부장적 문화를 참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부부관계보다는 부자 관계를 중시하며, 가족 개개인 보다는 가문의 한 단위인 집안이 우선하는 가부장적 가족형태를 가지고 있다[29]. 또한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는 남성이 장이 여성과 나이 어린 남성 가족원을 지배하고 활동을 통제하는 권위를 갖는데,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남녀평등 사회를 주장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이나 관행이 남아 있다[29]. 따라서 가부장적 사고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은 한국의 기혼여성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산화로 한국에 비해 양계적인 가족체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33], 신민법이 제도화된 일본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기혼여성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32]. 따라서 가정의 권위, 남아 선호사상, 남존여비사상과 같은 가부장적 사고로 인해 한국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남편과 시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3S1A5A2A01019216).

REFERENCES

- [1] Korea Statistics, 2012 Statistics for multicultural population characteristics (2013. 11. 2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10456, 2013.
- [2] M. B. Chun,, G. Knight, G. Youn,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models of emotional distress among Korean, Korean-American and White-American caregivers. *Aging & Mental Health*, Vol. 11, No. 1, pp. 20-29, 2007.
- [3] M. Ishii-Kuntz,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mo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Americans. *Family Relations*, Vol. 46, No. 1. pp. 23-32, 1997.
- [4] Y. R. Lee, K. T. Sung, Cultural differences in Caregiving Motivations for Demented Parents: Korean Caregivers Versus American Caregi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44, pp. 115-27, 1997.
- [5] G. Youn, B. G. Knight, H. S. Jeong, D. Benton, Differences in familism values and caregiving outcomes among Korean, Korean-American, and White-American dementia caregivers. *Psychology and Aging*, Vol. 14, pp. 355 - 364, 1999.
- [6] P. Dilworth-Anderson, I. C. Williams, B. E. Gibson, Issues of race, ethnicity, and culture in caregiving research:A 20-Year review (1980-2000). *The Gerontologist*, Vol. 42, pp. 237-72, 2002.
- [7] Y. J. Kim, S. C. Chang, Comparison of university students' caregiving consciousness in the Korea and Japan. *Journal of Japanese Culture*, Vol. 39, pp. 211-229, 2008.
- [8] J. H. Choi, Comparison of Adult children's Quality of Relationship and Care Provision for Elderly Parents in the U.S. and Korea. *Journal of Korea Gerontology Society*, Vol. 29, No. 2, pp. 611-627, 2009.
- [9] M. R., Janevic, C. M. Connell, Racial, ethnic,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dementia caregiving experience: Recent findings. *The Gerontologist*, Vol. 41, pp. 334-347, 2001.
- [10] L. Ayalong, Cultural variants of caregiving or the culture of caregiving. *Journal of Culture Divers*, Vol. 11, No. 4. pp.131-138, 2004.
- [11] L. M. Donorfio, N. W. Sheehan, Relationship dynamics between aging mothers and caregiving daughters: Filial expectations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Vol. 8, No. 1, pp. 39-49, 2001.
- [12] E. Y. Seong, J. E. Kwon, S. T. Hwa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nflict of Mother-in-law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Rural Area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7 No.3, pp. 363-383, 2012.
- [13] S. D. Chung, H. J. Park, H. J. Lee, Perceived relationships of parents-in-Law with foreign daughters-in-Law and factors related to their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9, pp.29-53, 2010.
- [14] H. K. Kang, Qualitative study on factors and processes of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interviews of married immigrant women residing in rural areas and their mother-in-laws.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Korea, 2013.
- [15] J. O. Park, The Factors Affecting Conflicts between Mothers-in-law of Daughter-in-law in Multi-cultural Family. *The Institute for Korean Culture*, Vol.52, pp. 269-307, 2012.
- [16] Y. Lee, M. J. Lee, Married female immigrants'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in-laws and their beliefs about filial responsibility for elderly caregiv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 46, pp. 127-156, 2009.
- [17] Korea Statistics. 2013 Statistics for marriage and divorce(2014. 4. 22),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1320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2014.
- [18] A. Omery,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Research Science*, Vol. 5, No. 2, pp. 49-63, 1983.
- [19] J. S. Lee, G. Y. Kim, M.S. Moon, H. J. Lee, S. S. Hwang, J. M. Cho,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Doctoral Course Students'process of getting out from Bugeum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Journal of Academic Psychology Mental Health Nursing*, Vol. 5, No. 2, pp. 67-82, 1996.
- [20] F. E.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alle RS, King M(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8.
- [21] S. K. Choi,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lderly mothers'experiences in taking care of their adult cerebral palsy childre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2, no. 1, pp. 18-45. 2008.
- [22] K. J. Lee, (A) Study on the employment experience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 like a salmon running back in the river, Docto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2007.
- [23] S. H. Yang, The experience of mothers of sexually abused children, Docto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2009.
- [24] S. James, J. Hunsley, G. Navara, M. Alles, Marital,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spects of sojourner adjustment: Expanding the field of e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8, pp. 111-126, 2004.
- [25] K. Oberg, Culture shock and the problem of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vol. 7, pp. 170-179, 1960.
- [26] I. S. Kim, M. J. Kim, K. S. Han, Immigrant women's experiences of conflict and communication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policy issues.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06.
- [27] K. S. Han, Family Life and Cultural Encounter of Foreign Wives in Rural Area. *Korea Cultural Anthropology*, Vol.39, No. 1, pp.89-128, 2012.
- [28] H. I. Choi, Research for the Relief of Conflict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3 No.1, pp. 64-73, 1998.
- [29] H. K. Lim, Confucianism's universal Familism : critics and prospect. *Study on Orient*, Vol.23, pp.299-312, 2012.
- [30] D. C. Kim, Confucianism and familism of Korea. *Economy and Society*, Vol. 55, pp. 93-118, 2002.
- [31] M. S. Youn, H. K. Lee,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Mother-Laws with Foreign-daughter-in-Laws in Rural Area.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Vol.20, No.2, pp.191-232, 2010.
- [32] M. J. Ko, Changing of Family and Supporting Elders of Japanese Society in Postwar Days. *Korean Japanese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 33, pp. 333-348, 2007.
- [33] K. A. Lee, Change of family structure in Chinese society and adaptation in modern. *Study on Sinology*, Vol. 33, pp. 537-571, 2005.
- [34] K. D. Park, Centering on Cases in Gwangju and Jeonnam, Korea = A Study on the Making and Conflicts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Culture Forum*, Vol. 18, pp. 147-174, 2008.

김 윤 정(Kim, Yun Jeong)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부양가치관, 자살
- E-Mail : twoyun21@hanmail.net